

## 행복한 금요 편지

# 내 마음의 선(線)하나를 되찾으며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sup>1)</sup>

“제기랄 왜 이리 더워?” “날씨가 미쳤나, 정말 못 견디겠네!” “기상청 새끼들 엉터리 잼아! 일기예보란 게 순전히 엉터리야, 아이참!” 금년 여름엔 혹서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포의 무더위’를 이겨내고 시원한 가을바람을 즐기는 분들은 모두 승리자이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기후와 날씨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 요즈음엔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옛날에는 ‘부귀다남(富貴多男)’ ‘수복강녕(壽福康寧)’이라 하여 돈과 명예와 여러 아들을 뒤야 행복하다거나 오래 오래 복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불과 2, 3세대 전의 표현인데 짧은 기간에 우리 사회가 크게 변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중심으로 챙겨야 할 ‘느낌’이다. 이 세상이 어떠한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세상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말한다. 녹록치 않게 보는 나의 느낌이 문제의 씨앗이다. 입에 맵고 독한 것도 내 몸에 좋은 것이니 기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택하면 어렵지 않게 삼킬 수 있지 않은가!辛라면 광고를 볼 때마다 한결 같이 세상을 아름답고 고맙게 보려고 노력하는 내 마음 한 획을辛자에 더하면 幸이 되기에, 진정 행복의 비결은 ‘마음먹기’에 있음을 확신한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은 현재 (재)글로벌에코포럼\_담양의 이사장과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여러 개의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건 세상 수학의 기본 원리다. 내 마음에서 샘솟는 사랑, 겸손, 감사, 미소, 친절, 용서, 사과, 진실, 희망, 인내, 협력, 존경, 위로, 보호, 동행, 나눔 ..... 이러한 싱그러운 점들을 이어 가면 행복으로 연결된다.

辛자에 선(一)하나 없으면 바로 행복을 만들어 幸이 되지 않는가! 나와 내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내가 보내는 마음의 점들이 진정 함께 섞이고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인지, 이 가을에 스스로 살필 일이다. "네 자신을 알라."고 부드럽게 내 가슴의 빈 구석을 파고드는 소크라테스의 속삭임을 어둠에 스며드는 한 줄기 빛으로 여기고, 이 가을엔 내 자신을 새롭게 정돈하자.

상처나고 스트레스라는 먼지에 뒤덮인 내 마음의 선(線)을 회복하여 무더위가 남기고 간 辛자에 덩석 얹어서 幸의 가을로 튼튼히 거두자. "아, 나는 행복합니다!" 푸른 하늘에 행복의 메아리를 채우자, 대한민국이여!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